

● 『발명하는 사람들』에 말한다

슬럼프에 빠진 당신, 위기를 기회로!



김 병 오
한산중학교 교무부장
(ajukbo@hanmail.net)

발명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그들 중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도전정신을 제공함은 물론 그들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사연들을 전해주고자 한국여성발명협회에서 창간한 '발명하는 사람들'이 벌써 지령 37호를 맞이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발명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발명을 알리고, 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키워주는 내용을 듬뿍 담아 전국 구석구석으로 전해지길 바란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슬럼프(slump)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발명하는 사람들, 당신에게 슬럼프가 찾아왔는가? 심신의 상태나 작업, 또는 현재하고 있는 사업 등이 일시적으로 부진한 상태인 슬럼프. 이 때는 친구들을 만나도 즐겁지 않고, 매사에 흥미가 없는 상태이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기분을 조금이라도 느낀 적이 있다면 지금 인생을 바꿀 기회가 온 것이다.

『슬럼프를 즐겨라』라는 책을 쓴 한기연 씨는 슬럼프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느라 고인이 모두 빠진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러분은 왜 거짓말을 하고, 왜 진이 빠져 슬럼프를 맞이하였는가? 외모와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인가? 아니면 돈, 혹은 사랑 때문인가? 또는 타인의 시선 때문인가? 아니면 외로움 때문인가? 어떤 경우이든 가식적인 자기를 버리고,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만나려는 노력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어쨌든 슬럼프에 빠진 당신!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면, 오히려 슬럼프가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슬럼프가 악화되어 심각한 위기가 닥쳤다고 해도 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인생을 화려하게 바꾼 경우가 많다.

위기가 곧 기회이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위기가 곧 기회이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한문으로 위기(危機)는 위험(danger)을 뜻하는 '危'자와 기회(opportunity)를 뜻하는 '機'자를 쓰고 있으며, 영영사전에는 전환점 혹은 반환점(turning point)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이처럼 위기가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위기는 곧 기회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지난 2002년 12월 미국연방식품의약품(FDA) 검사를 통과한 '한우물 정수기'는 교직생활을 그만두고 '물장사'에 뛰어든 강승식 사장의 발명품이다. 이 발명품이 그를 위기에서 탈출시켜 지금은 월 매출 수십억원을 기록하는 ㈜한우물 대표이사 사장으로 인생을 역전시켰다. 그는 술을 좋아하여 1978년 간염과 동맥경화, 고혈압 때문에 분필조차 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병원을 다녀도 차도가 없어서 집에서 식이요법과 부황으로 치료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알칼리수와 부황의 효능으로 20일 만에 완치되었다. 그래서 영어 교사를 그만두고 전기분해식 구조인 알칼리수를 만드는 정수기를 발명하게 되었으며, 세계 각국의 발명품 대회에 출시해 '환경·의료부문 8회 연속 금상수상'이라는 대기록을 세워 기네스북에까지 올랐다. 국내 공기청정기 판매 1위라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하게 된 청풍의 최진순 회장이 만든 '공기청정기' 역시 위기에서 끈질긴 집념으로 찾은 아이디어를 상품화하여 성공한 사례이다.

강화에서 직물공장을 하던 아버지를 도와 어린 나이부터 공장 일을 하게 된 최 회장은 공장이 발전기 과열로 불이 났고, 불을 끄던 중 3m 높이에서 굴러 떨어지게 되었다. 그 때 몸을 혹사한 것이 원인이 되어 당뇨를 앓게 되었고, 몸의 왼쪽 부분을 완전히 쓸 수 없었으며, 심지어 말조차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운명의 여신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최 회장은 우연히 중풍에 음이온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거동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음이온을 찾아 산에 오르내리던 그는 음이온을 직접 만들어 내기로 결심하여 공기청정기를 발명하게 되었다. ㈜청풍이 만든 음이온 발생 공기청정기는 IMF 때에도 오히려 매출액과 순이익 증가라는 놀라운 경영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런 사례가 위기에서 찾은 아이디어로 인생

역전을 이룬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슬럼프' 빠지기 전에 견져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슬럼프에 빠진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 서도 언제 왜 어떤 일로 인하여 슬럼프에 빠졌는지도 모른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면 슬럼프에 빠지는 일이 없을지도 모른다. 사실은 슬럼프도 빠지기 전에 예방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슬럼프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생활습관이다.

세상을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은 슬럼프에 빠질 시간이 없다. 매일 일정한 목표를 채우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생활한다면 그것이 곧 삶의 원동력이 되고, 좋은 습관의 시작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이다.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이든 항상 의욕에 넘치고, 하고 싶은 에너지가 가득하다고 해서 그 일이 잘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덤덤한 마음이지만, 평안하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며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쉽게 슬럼프에 빠지지 않는다. 즉 스스로의 감정 굴곡이 없고, 주변의 영향에 의해 잘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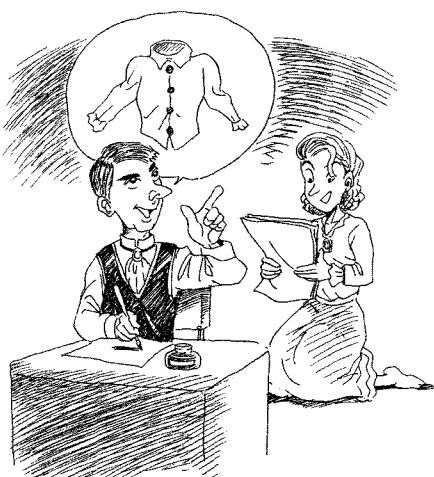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새로운 것에 몰두하는 일이다.

발명가적 기질, 즉 엉뚱한 사고와 적극적인 탐구능력, 그리고 남과 다르게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진다면 자기 주변 모든 것들에 대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일이 진행될 것이며, 또 찾은 아이디어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탐구하는 빈틈없는 시간들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슬럼프는 없을 것이다.

매순간 정성을 다해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생활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이고, 그러면 당신의 인생도 새롭게 디자인 될 것이다. 더우기 발명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롭게 디자인 된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즉 아이디어를 찾는 일이나 세상을 새롭게 보는 엉뚱한 발상을 한다면 당신에게도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온다고 말하고 싶다.

책 속의 이야기

엉뚱한 발상 하나로
세계적 특허를 거머쥔 사람들

대중을 위한 패션
뷰티릭의 재단 표본

옷을 만드는 작업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옷감에다가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을 그리는 일이다. 그런 다음에 옷감을 자르고 바느질을 하면 한벌의 옷이 된다.

오늘날에는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몸에 맞는 것을 사서 입는다. 그렇기 때문에 옷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1800년대에는 서양에서도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주부가 옷을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옷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고, 특히 옷감을 재단하는 일은 가장 힘든 작업이었다. 이러한 때에 간편하게 옷감을 재단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낸 사람이 있었다. 바로 에베네저 뷰티릭이다. 뷰티릭은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스티어링이라는 작은 지방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손재주가 뛰어났고 호기심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만물박사로 불렸는데 뷰티릭은 이런 아버지를 무척 많이 닮았으며 그의 손재주는 아버지보다 뛰어날 정도였다.

뷰티릭의 손재주는 가까운 지방에까지 소문이 났다. 그래서 위체스터 지방에 있는 양복점에서 그를 견습생으로 키우겠다는 제의를 해왔고, 뷰티릭은 그 제의를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꿈을 생각하며 열심히 일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뷰티릭은 성인이 되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어 피츠버

그에 양복점을 차리게 되었고, 1850년에는 아리따운 아가씨를 만나 결혼도 하였다. 이 당시에는 새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 옷이 필요했다. 왜냐하면 옷감을 재단할 때 사용하는 옷의 표본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가정주부가 집에서 옷을 만들 때는 먼저 현 옷을 뜯어서 재단 원판을 만들어야 했다. 이것은 참으로 번거로운 일이었고,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었다.

어느날, 뷰티릭은 아내가 현 옷을 뜯어서 재단 원판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도 그런 식으로 옷을 만들었던 기억이 났다.

'옷을 만들 때마다 현 옷을 뜯어 재단 원판을 만들어야 하다니 정말 번거로운 일이야. 간단하게 옷을 재단하는 방법은 없을까?' 뷰티릭은 아내를 위해서 현 옷을 사용하지 않고도 옷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기로 마음먹었다. 양복점에 손님 드문 날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단을 해보았다.

며칠 뒤, 뷰티릭은 피곤한 모습으로 작업실에서 나와 뺨뺨한 종이 몇 장을 아내에게 건네며 말했다. '여자아이의 블라우스를 만들 수 있는 재단 표본이야. 시험해 보도록 해요.'

얼마 뒤 아내는 뷰티릭에게 다가와서 기뻐하며 말했다.

'여보, 이거 정말 좋은데요. 재단을 금방 끝낼 수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들 생각을 했나요?'